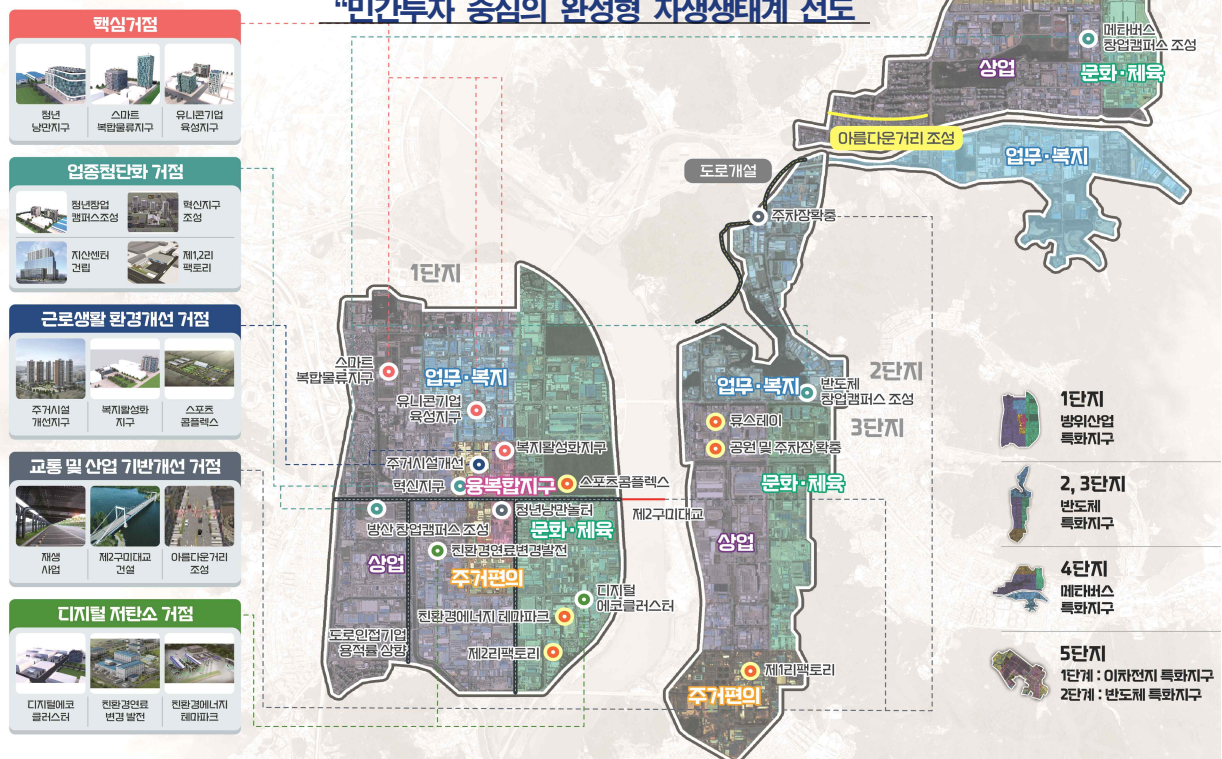


심사대상 : 구미국가산단

- ① **(일반현황)** 입주기업(2,659개사), 생산액(50.1조원), 수출액(230억불), 고용(85천명)
* 경상북도 내 제조업의 기업수 44%, 생산 50%, 수출 66%, 고용 50%를 차지
- ② **(입지여건)** 도로·철도 등 교통 인프라는 우수하나 착공 이후 50년이상 경과되어 기반시설이 노후되고, 대기업 이탈로 계열화가 해체되며 유희부지 다수 발생
- ③ **(정주여건)** 지원시설 노후화 및 슬럼화, 문화·여가시설 부족, 고질적 주차장 부족문제 등 정주 여건이 지속 악화되어 청년인력 이탈의 원인

구 분	현 재	미래 변화상
공간재편	중소·영세기업 확대 및 산업쇠퇴로 유휴 제조공간 확대	산단별 특화산업을 지정·육성하여 기술력을 바탕으로 한 근간이 튼튼한 산단 조성
	정부 주도의 경직된 부지사용으로 근로·생활환경이 악화	지역과 민간 주도로 부지를 유연하게 활용하고, 융복합거점을 조성하여 근로자를 위한 직·주·락 실현
산업재편	기존 주력산업 쇠퇴로 신성장동력 모색 필요	구미 특화산업(방위산업, 반도체, 이차전지, 메타버스)을 육성하여 첨단산업 중심단지로 전환
	대기업 계열화 해체로 전자·기계업종 중소기업 경쟁력 악화	전자·기계 등 기존 주력산업 DX지원 및 기술고도화를 통한 경쟁력 강화

구미국가산업단지 **첨단특화산업 육성과 공간혁신으로**
“민간투자 중심의 완성형 자생생태계 선도



심사대상 : 창원국가산단

- ① **(일반현황)** 입주기업(2,922개사), 생산액(51.6조원), 수출액(155억불), 고용(117천명)
* 경상남도 내 제조업의 기업수 41%, 생산 66%, 수출 67%, 고용 54%를 차지
- ② **(입지여건)** 도로·항만 등 산업기반 인프라가 우수하고 배후지역(창원시) 내 인력이 풍부하나 주력산업 고도화를 위한 R&D 기반은 상대적으로 부족
- ③ **(정주여건)** 기계산업 등 주력업종의 경쟁력에도 불구하고 산단 내 문화·여가 인프라 부족 등으로 인해 청년인재 확보에는 한계

구 분	현 재	미래 변화상
공간재편	단순 생산형 산업환경	일자리, 문화·복지, 주거 등 융합 공간조성
	남측의 산단과 북측의 배후지역으로 산단-도심간 공간 분리	도심-산단을 구분하는 대로 주변 융복합 로드 조성 일터와 삶터가 연계된 공간으로 재편
산업재편	저부가가치 기계산업 중심	R&D 연구기관 집적, ICT 융합된 고부가가치 기계산업 생태계 구축
	국내 최대 방산집적지로 무기체계 중심 제조 원자력산업 생태계 약화	첨단무기 연구개발형 산업구조로 개편 글로벌 원자력산업의 거점단지로 도약

창원대로 일대를 단절·분리 ▶ 소통·연계·협력의 축으로 재편(미래형 융·복합로드 조성)

- ✓ 기업 부설연구소(창원 및 인근지역), 연구개발전문기업, 창업기업, ICT 및 지식산업 등의 유치·집적
- ✓ 문화·편의시설 등 청년친화형 근무환경 조성



심사대상 : 남동국가산단

- ① **(일반현황)** 입주기업(7,860개사), 생산액(29.7조원), 수출액(48억불), 고용(85.6천명)
* 인천시 제조업의 기업수 39.6%, 생산 21.9%, 수출 10.3%, 고용 41.2%를 차지
- ② **(입지여건)** 서울 등 수도권의 거대 배후도시를 배경으로, 최적의 입지와 교통·항만 등 우수한 인프라를 보유한 인천광역시 최대의 국가산업단지
- ③ **(정주여건)** 지원시설구역이 전체의 3.14%에 불과하며, 산업시설면적의 70%가 30년 이상 된 노후시설로 근로환경 열악 및 근로자 편의·지원시설 크게 부족

구 분	현 재	미래 변화상
산업 재편	소재·부품·장비 등 뿌리산업이 대부분이며, 50인 미만 영세소기업 비중 96.2% 차지	뿌리산업의 높은 집적도를 기반으로 소재·부품·장비산업 DX화 및 저탄소 전환
	주력업종 영세화로 혁신역량 및 신성장산업으로의 전환 미흡	B(바이오·뷰티), M(모빌리티), S(반도체)와 뿌리산업 등 3+1 산업육성으로 첨단산업육성
공간 재편	유희부지의 절대적 부족 및 업종별 산재에 따른 집적화 시너지 역량 부족	성장유망산업과 기존산업 등 3+1의 육성산업지구 재편, 산업단·산단간 연계 확대
	신성장산업 육성 공간 부족	각 산업지구별 핵심 거점조성으로 산업↔인력↔협업이 어우러지는 융복합공간 재편
생활 재편	산업시설 면적의 약 70%가 30년 이상 된 노후시설로 인프라와 근무환경 열악	스마트 ICT인프라 도입으로 교통여건 해소와 안전·안심 산단 구현
	단지 규모 대비 지원시설과 녹지 부족으로 근로자 쉼터 부족	인근도시와 연계, 주민과 근로자를 위한 산업문화공간으로 전환(3축 5존)

[남동산단 미래 변화상]

“청년이 찾아오고, 산업이 부흥하며 주민과 하나가 되는 **新산업단지 탈바꿈**”



심사대상 : 오송생명과학단지

- ① **(일반현황)** 입주기업(193개사), 생산액(3.23조원), 수출액(9.5억불), 고용(5천명)
* 청주지역 내 산업단지에서 기업수 6.8%, 생산 12.5%, 수출 3.9%, 고용 8.6%를 차지
- ② **(입지여건)** 국토 중심에 자리하고 있으며, 보건의료 6개 국책기관, 4대 핵심연구시설이 입지한 국내 유일 바이오 특화산업단지이나, 수도권 바이오클러스터와의 경쟁 심화, 부족한 정주여건에 의한 지속적인 인력유출 등으로 산단 구조고도화 필요
- ③ **(정주여건)** 단지 내 진입하는 대중교통 부족, 주차난, 청년 근로자들이 즐길 수 있는 문화·편의시설 전무, 주거시설 부족 등 정주환경 미흡

구 분	현 재	미래 변화상
산업재편	중소기업 또는 대기업 생산공장 중심으로 부가가치 창출 한계	대규모 벤처타운 조성으로 첨단바이오 혁신역량 극대화
	단순 의약품, 의료기기 중심의 산업	기존산업에 디지털바이오, 바이오서비스 융합을 위한 기술개발·창업공간 지원 첨단 바이오 글로벌 혁신특구 조성으로 국제 재생의료분야 기술의 중심지로 도약
공간재편	상업·지원시설 부족(면적 6.7%)으로 근로환경 열악	복합구역 추가, 신설로 미래형 융복합 공간 조성하여 정주여건 개선
	임상 및 연구에 핵심역할을 수행할 교육시설 및 대형병원 부재	교육시설(3개), 연구원(2개), 연구병원(1개) 유치로 통해 전문인력 양성
	상업용지 면적이 상대적으로 부족하여 기업 확장에 한계	인근산단(오송2~3산단, 바이오·화장품 산단)과 연계한 오송바이오밸리의 중심으로 시너지 창출

오송생명과학단지 변화상



심사대상 : 여수국가산단

- ① (**일반현황**) 입주기업(301개사), 생산액(99조원), 수출액(380억불), 고용(25천명)
* 전라남도 내 제조업의 기업수 8%, 생산 71%, 수출 70%, 고용 27%를 차지
- ② (**입지여건**) 국내 최대의 석유화학 특화단지로 항만, 도로 등 산업기반시설과 교통 인프라가 우수하나, 산단 노후화, 저탄소 정책 규제 등으로 주력산업 경쟁력 저하
- ③ (**정주여건**) 전남 내 산업을 선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산단 노후화에 따른 안전사고 발생 및 문화·여가시설 부족 등으로 정주여건이 열악

구 분	현 재	미래 변화상
공간재편	개발 가용용지 부족 및 점단위 개발로 사업파급 효과 한계	확장단지 개발 및 노후산단 재생사업을 통한 산단 활력 제고
	문화·편의공간 부족 및 산단 노후화로 정주여건 열악	문화·편의시설 확충을 통한 청년이 모이는 산단으로 탈바꿈
산업재편	화학·금속 등 고탄소 주력산업 중심으로 지속적 성장 한계	첨단화학 및 수소산업 육성을 통한 친환경·저탄소 산단으로 전환
	R&D 기반 취약에 따른 석유화학산업 고도화 한계	융복합 집적지 조성을 통한 광양만권 선도 혁신 거점단지로 도약

